



주희의 심통성정론

Today's 비문학

독해 포인트 : 개념의 정리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인격 완성과 도덕적 실천을 증시한 송대 유학자들에게 심(心)은 중요한 철학적 문제였다. 남송 시대의 주희는 심의 작용에 주목하여 미발이발(未發已發)과 체용(體用)의 논리를 근거로 ① **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을 제시했다. 미발과 이발은 희로애락(喜怒哀樂)과 같은 감정이 심에서 드러나는 과정을 드러내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는 개념이다. 체용은 본체와 작용으로서, 동일한 사물의 서로 구별되지만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리킨다.

② 주희는 일신의 주재자인 심에는 인식이 성립하는 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미발과 이발의 두 단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심을 이발로만 보던 관점을 극복하고, 지각 작용이 시작하기 이전이 미발 상태이며 그 이후가 이발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그는 감정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 심의 본체와 작용으로 각각 성(性)과 정(情)을 규정하고, 정은 성이 드러난 것이요 성은 정(情)의 근거라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심이 성과 정을 통괄하는 총체라는 심통성정론을 구축했다.

③ 심이 성과 정을 통괄한다는 것은 심이 성과 정을 겸하고 있다는 것과 심이 성과 정을 각각 주재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감정이 드러나기 이전에 심은 성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도록 주재하고, 감정이 드러나는 단계에서 심은 정이 올바르게 드러나도록 주재하여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희는 인간이 천리(天理)와 일치하는 순선무악한 천명지성(天命之性)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체라는 기(氣)의 요인을 가진 기질지성(氣質之性)을 타고났다고 보았다. 천명지성은 도덕의 근거이지만, 기질지성은 주어진 청탁후박(淸濁厚薄)의 기질적 차이로 이의의 추구나 감각적 욕구에 빠져 드는 악한 감정의 뿌리가 된다. 기질지성은 성(性)이라는 면에서는 이(理)의 성격을 지니지만 기질이라는 면에서는 기(氣)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질지성이 천명지성과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다. 주희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인간의 본성이 필연적으로 기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기 때문이다. 즉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질지성을 변화시켜 천명지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 심통성정론은 기질지성을 지닌 인간이 어떻게 본성을 발휘하여 도덕적 감정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답하기 위한 주희의 해결책이다. 심은 정이 드러나기 이전 단계에서 자신의 본체이기도 한 성을 어떻게 주재할 것인가? 주희가 이러한 난문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방법은 경(敬)을 통한 품성의 함양이었다. 경은 항상 깨어 있으라는 상성성(常惺惺)과 엄숙한 자세인 정제엄숙(整齊嚴肅) 등의 방식으로 흐트러지기 쉬운 심을 한곳에 잡아 두는 것이다. 예법의 준수와 용모의 단정 등과 같은 행위 또한 심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에 들어가는 방도로 인정된다. 품성을 함양하는 경의 단계는 심이 미발일 때이며, 이발일 때는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단계이다. 격물은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태에 나아가 하나씩 원리를 궁구해 가는 과정이며, 치지는 이러한 탐구를 통해 점진적으로 학습한 원리가 보편적 원리와 일치함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다. 누적된 지식은 비약적으로 확장하여 만물의 원리를 일관하는 천리와 합일한다. 심의 원리인 성이 천리와 합일하는

것이 주희가 제시한 성즉리(性卽理)의 철학이었다. 이처럼 주희는 미발일 때의 함양과 이발일 때의 격물이 라는 수양론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실천은 이러한 수양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다.

- ⑤ 주희가 제시한 격물의 대상은 조수초목(鳥獸草木)과 윤상 규범(倫常規範)에 이르기까지 광범하였지만, 그 방법은 주로 성현이 이미 원리를 기록해 둔 경전의 학습이었다. 주희의 격물론은 도덕의 원리를 탐구하는 지적인 과정이고 최종의 목표는 인격 완성이었기 때문에 그는 미발 단계에 설정해 두었던 함양 공부를 이 발 단계의 공부에까지 확장하여 수양론을 완성했다. 주희의 철학은 심성에 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천리 에 따르는 인간의 길을 제시했고, 명리(名利)를 좇아가는 세상을 도덕적 사회로 바꾸고자 했다.

[문제 1] ㉠에 대한 이해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 ①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은 희로애락의 본성에서 나온다.
- ② 희로애락의 본성은 체이고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은 용이다.
- ③ 기질지성으로부터 나오는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은 순선하지 않다.
- ④ 심이 미발일 때 희로애락의 본성은 본래의 상태에서부터 벗어나 있다.
- ⑤ 이발 상태의 심은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이 올바르게 드러나도록 주재한다.

[문제 2] 주희의 수양론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2)

- ① 행동거지는 마음의 발현이므로 윤리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고자 한다.
- ② 사회적 실천을 우선시하면서 경을 통해 경전을 학습하여 진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 ③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데에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므로 품성의 도야에 힘쓰고자 한다.
- ④ 타고난 마음의 선한 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자 한다.
- ⑤ 자연 및 사회 현상의 원리에 대한 탐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덕 원리의 파악에 이르고자 한다.

[문제 3] 위 글에 따를 때, 주희의 문제의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

- ① 경전 학습이 도덕적 인간에 이르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 ② 인간이 악한 행동이나 나쁜 감정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③ 세상 만물을 관통하는 근본적 원리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 ④ 천리와 인도의 위상을 바꾸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⑤ 이익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세상을 어떻게 도덕적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

Today's 비문학 해설

익숙한 일상어가 아닌 용어들이 반복되어 사용되는 글에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독해하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 논리적으로 대단히 복잡한 글이 아니지만 대략적인 이해를 했다고 타협하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전 문단의 내용은 머리 속에서 모두 사라진다. 이 글을 읽는 학생들은 선생이 당부한 내용을 잊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어 보겠다. 각 문단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찾으려 독해하는 습관을 기르자고 선생이 여러번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소화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독해는 취미로 하는 독서인 것인지를 시험을 보기위한 분석적 독해가 아니다.

소화제를 판단했다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개념'은 중학교 때 처럼 순진하게 '○○이란 ~ 이다'와 같이 정의의 방식으로만 제시되지는 않는다. 수능 국어 비문학에서 개념이란 좀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 의미에서 쓰이는 것이 아닌 어떤 용어에 대해 풀어 써 놓은 부분이 있으면 모두 개념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런 부분이 지문 속에 발견된다면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한다.

함께 볼 지문은 이러한 개념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지문이다. 지금부터 꼼꼼하게 분석해 보자.

㉠ 인격 완성과 도덕적 실천을 중시한 송대 유학자들에게 심(心)은 중요한 철학적 문제였다. 남송 시대의 **주희는 심의 작용에 주목하여 미발이발(未發已發)과 체용(體用)의 논리를 근거로 ㉡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을 제시했다. 미발과 이발은 희로애락(喜怒哀樂)과 같은 감정이 심에서 드러나는 과정**을 드러내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는 개념이다. **체용**은 본체와 작용으로서, 동일한 사물의 서로 **구별되지만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리킨다.

㉠ 문단의 소화제는 “심의 작용에 대한 주희의 ‘심통성정론’”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소화제를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다. 정리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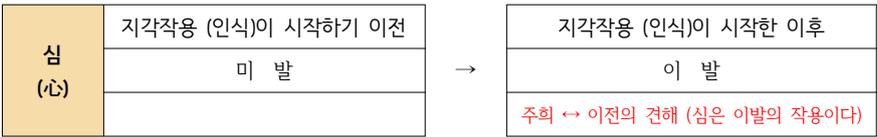
- o '미발과 이발' : 감정이 드러나는 과정을 나눈 것
- o 체용 : 동일한 사물의 구별되지만 나눌 수 없는 관계

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는 이 이상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자.

㉡ 주희는 일신의 주재자인 심에는 **인식이 성립하는 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미발과 이발의 두 단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심을 이발로만 보던 관점을 극복하고, **지각 작용이 시작하기 이전이 미발** 상태이며 그 **이후가 이발**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그는 감정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 **심의 본체와 작용**으로 각각 성(性)과 정(情)을 규정하고, **정은 성이 드러난 것이요 정은 정의 근거**라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심이 성과 정을 통괄하는 총체**라는 심통성정론을 구축했다.

㉡ 문단은 ㉠ 문단의 부연의 성격을 갖고 있는 문단이다. ㉠ 문단에서 제시했던 개념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고 있으니 글쓴 사람의 성의를 봐서라도 한 번 더 거들떠 봐 주자.

우선 '미발과 이발'의 개념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다.



다음은 성과 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정리해 보자.

심의 본체와 작용	정	성이 드러난 것
	성	정의 근거
	(성이 근거가 되어 외부로 드러난 것이 정이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 문단의 중심 화제로 제시한 ‘심통성정론’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 심 = 성과 정을 통괄하는 총체 = 심통성정론

㉢ 심이 성과 정을 통괄한다는 것은 심이 성과 정을 겸하고 있다는 것과 심이 성과 정을 각각 주재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감정이 드러나기 이전에 심은 성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도록 주재하고, 감정이 드러나는 단계에서 심은 정이 올바르게 드러나도록 주재하여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희는 인간이 천리(天理)와 일치하는 순선무악한 천명지성(天命之性)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체라는 기(氣)의 요인을 가진 기질지성(氣質之性)을 타고났다고 보았다. 천명지성은 도덕의 근거이지만, 기질지성은 주어진 청탁후박(淸濁厚薄)의 기질적 차이로 이익의 추구나 감각적 욕구에 빠져 드는 악한 감정의 뿌리가 된다. 기질지성은 성(性)이라는 면에서는 이(理)의 성격을 지니지만 기질이라는 면에서는 기(氣)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질지성이 천명지성과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다. 주희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인간의 본성이 필연적으로 기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기 때문이다. 즉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질지성을 변화시켜 천명지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야기가 복잡하다. ‘다구리의 원리’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끊어서 보자.
우선 첫 번째 화제는 ㉡ 문단에서 심통성정론의 개념을 설명한 것을 다시 부연해 주고 있다.

‘심이 성과 정을 통괄한다’의 의미	① 심이 성과 정을 겸하고 있다.
	② 심이 성과 정을 각각 주재한다.

다음으로 감정을 기준으로 ‘심’이 도덕적 행위를 하게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심	감정이 드러나기 전	성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도록 주재	인간의 도덕적 행위
	감정이 드러나는 단계	정이 올바르게 드러나도록 주재	

다음으로 주희가 생각하는 인간을 설명하면서 다시 관련된 개념으로 내용을 확장하고 있다.

인간	천명지성	도덕의 근거
	기질지성	악한 감정의 뿌리 / ‘이+기’의 성격

이러한 개념과 전제를 바탕으로 주희의 주장이 드러난다.
악한 감정의 뿌리가 되는 ‘기질지성’이 도덕의 근거가 되는 ‘천명지성(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질지성을 변화시켜 천명지성을 보존하는 것이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게 되는 길이라고 주희는 설명하고 있다.

결국 ㉢ 문단에서 장황하에 여러 가지 개념이 소개된 것은 도덕적 행위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주희의 주장을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개념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고 해서 대충 읽고 넘어간다면 문단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알맹이를 놓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지만 개념은 무조건 확인하고, 이 개념을 통해 무엇을 설명하거나 주장하기 위한 것인지 집중하며 독해해야 한다.

④ 심통성정론은 기질지성을 지닌 인간이 어떻게 본성을 발휘하여 도덕적 감정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답하기 위한 주희의 해결책이다. 심은 정이 드러나기 이전 단계에서 자신의 본체이기도 한 성을 어떻게 주재할 것인가? 주희가 이러한 난문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방법은 경(敬)을 통한 품성의 함양이었다. 경은 항상 깨어 있으라는 상성성(常惺惺)과 엄숙한 자세인 정제엄숙(整齊嚴肅) 등의 방식으로 흐트러지기 쉬운 심을 한곳에 잡아 두는 것이다. 예법의 준수와 용모의 단정 등과 같은 행위 또한 심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에 들어가는 방도로 인정된다. 품성을 함양하는 경의 단계는 심이 미발일 때이며, 이발일 때는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단계이다. 격물은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태에 나아가 하나씩 원리를 궁구해 가는 과정이며, 치지는 이러한 탐구를 통해 점진적으로 학습한 원리가 보편적 원리와 일치함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다. 누적된 지식은 비약적으로 확장하여 만물의 원리를 일관하는 천리와 합일한다. 심의 원리인 성이 천리와 합일하는 것이 주희가 제시한 성즉리(性即理)의 철학이었다. 이처럼 주희는 미발일 때의 함양과 이발일 때의 격물이라는 수양론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실천은 이러한 수양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다.

④ 문단도 또 길다. 끊어 보는 수 밖에는 없다. 차근차근 접근해 보자.

앞 부분에서는 심통성정론의 의의를 소개하고 있다. 악한 감정의 뿌리가 되는 '기질지성'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㉑ 문단의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서 살을 덧붙였다.
우선 ㉑ 문단에서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심 (心)	지각작용 (인식)이 시작하기 이전	→	지각작용 (인식)이 시작한 이후
	미 발		이 발

그리고 ㉒ 문단의 내용도 다시 살펴 보자.

심	감정이 드러나기 전	성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도록 주재	인간의 도덕적 행위
	감정이 드러나는 단계	정이 올바르게 드러나도록 주재	

이를 바탕으로 ④ 문단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다.

심통성 정론 (심)	미발의 상태	→	이발의 상태
	성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도록 주재		정이 올바르게 드러나도록 주재
방법	'경'을 통한 품성의 함양		격물치지
성즉리 의 철학	'성'이 '천리'와 합일하는 것 (= 인간의 본성이 하늘의 뜻과 일치하는 것)		

어렵다. 결코 쉽지 않은 글이다. 그러나 100% 필자의 의도를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빠대는 꼬집어 낼 수 있겠다. 주희가 '심통성정론'을 주장하면서 '성'과 '정'을 설명한 이유는 품성의 함양과 격물치지를 통해 인간의 본성이 천리와 합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도덕적 행위'에 이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독해는 마치 레고같다. 한 문장, 한 단락은 의미없는 블록에 불과해 보일 수도 있다. 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다는 것은 의미 없어 보이는 레고 조각을 쌓아서 하나의 구체적 형상을 만들어 내야 하고, 그 형상이 작가가 글을 쓴 주제와 일치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위 글이 ④ 문단까지 오는 동안 장황하게 남발한 '개념'들은 도덕적 행위를 하는 방법을 제시한 주희의 주장을 소개하기 위한 전제였음을 알 수 있다.

㉔ 주희가 제시한 **격물**의 대상은 조수초목(鳥獸草木)과 윤상 규범(倫常規範)에 이르기까지 광범하였지만, 그 **방법**은 주로 성현이 이미 원리를 기록해 둔 **경전의 학습**이었다. 주희의 격물론은 도덕의 원리를 탐구하는 지적인 과정이고 최종의 목표는 인격 완성이었기 때문에 그는 미발 단계에 설정해 두었던 함양 공부를 이발 단계의 공부에까지 확장하여 수양론을 완성했다. 주희의 철학은 심성에 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천리에 따르는 **인간의 길을 제시**했고, 명리(名利)를 쫓아가는 **세상을 도덕적 사회로 바꾸고자 했다**.

㉕ 문단은 원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경전학습'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주희의 철학이 어떤 의의를 갖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문제 1] ㉔에 대한 이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은 희로애락의 본성에서 나온다.
- ② 희로애락의 본성은 체이고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은 용이다.
- ③ 기질지성으로부터 나오는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은 순선하지 않다.
- ④ 심이 미발일 때 희로애락의 본성은 본래의 상태에서부터 벗어나 있다.
- ⑤ 이발 상태의 심은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이 올바르게 드러나도록 주재한다.

이 글의 중심 화제가 되는 주희의 '심통성정론'에 대한 문제이다. 하나하나 근거를 가지고 답에 접근해 보자.

- ①번 선지는 2문단의 "정은 성이 드러난 것이다"라는 부분을 근거로 맞는 선지임을 판단할 수 있다.
- ②번 선지는 1문단에서 제시한 '체용'의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용 = 본체와 작용 = 성과 정)
- ③번 선지는 3문단에서 '기질지성은 악한 감정의 뿌리'라고 제시한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번 선지는 2문단을 통해 살펴 보자. 우선 '미발'과 '이발'의 개념부터 살펴야 하는데, 문제에서 제시한 '미발'은 감정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다기 말해 감정이 인식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2문단의 '체용'의 개념과 연결하면 '감정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는 '본체'의 상태이므로 '본래의 상태에서부터 벗어나 있다'고 진술한 ④번 선지는 옳지 않다.
- ⑤번 선지는 3문단 "감정이 드러나는 단계에서 심은 정이 올바르게 드러나도록 주재하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제 2] 주희의 수양론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행동거지는 마음의 발현이므로 윤리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고자 한다.
- ② 사회적 실천을 우선시하면서 경을 통해 경전을 학습하여 진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 ③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데에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므로 품성의 도야에 힘쓰고자 한다.
- ④ 타고난 마음의 선한 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자 한다.
- ⑤ 자연 및 사회 현상의 원리에 대한 탐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덕 원리의 파악에 이르고자 한다.

①번 선지는 4문단의 '행위 또한 심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에 들어가는 방도로 인정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행동 또한 품성 함양의 과정으로 보았다.

②번 선지 4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정오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4문단에서 "사회적 실천은 이러한 수양을 전제로 한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경전을 학습하여 도덕적 완성에 이르는 것을 전제로 사회적 실천을 제시하였으므로 사회적 실천을 우선시 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문제를 출제할 때 함정을 가장 많이 파는 곳은 선후관계를 뒤바꾸어 놓는 경우다. 이런 형식의 선지는 항상 주의하자.

③번 선지 : 4문단에서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태에 나아가 하나씩 원리를 궁구해 가는 과정으로서 미발일 때는 함양과 이발일 때는 격물이라는 수양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④번 선지는 4문단에서 제시한 '경을 통한 품성의 함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번 선지는 5문단의 도입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제 3] 위 글에 따를 때, 주희의 문제의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경전 학습이 도덕적 인간에 이르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 ② 인간이 악한 행동이나 나쁜 감정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③ 세상 만물을 관통하는 근본적 원리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 ④ 천리와 인도의 위상을 바꾸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⑤ 이익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세상을 어떻게 도덕적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문제 또한 지문에서 제시된 개념 가운데 하나를 묻고 있다.

[4] 문단 '심의 원리인 성이 천리와 합일하는 것이 주희가 제시한 성즉리(性卽理)의 철학' 부분을 참고하면 주희는 성과 천리의 합일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천리와 인도 가운데 위상이 어느것이 더 높아야 하는지는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④번 선지는 주희가 가졌던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없다. 나머지 선지들은 모두 이 글에서 소화제로 혹은 문단의 중심내용으로 언급된 내용들이었다. 어느 문단을 근거로 선지가 제시되었는지 찾아보기 바란다.

[정답]

- 1) ④
- 2) ②
- 3) ④